

새누리 연루 SNS팀 불법선거운동 檢고발

선관위, 朴 유리한 글 게시·리트윗 당에 보고… 민주 “빙산 일각”

피고발인, 선관위 맞고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임의의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인터넷 댓글 달기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8명을 적발하고 대표 윤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브리핑에서 “13일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 활동을 하는 유사기관을 적발, 밤샘 조사한 결과 위법행위를 확인했다”며 “관련자를 공식선거법 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사조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선관위 특별기동조사팀은 전날

오후 6시께 서울 여의도 한 오피스텔에서 새누리당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이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선거운동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급습, 증거물품을 확보하고 윤씨 등 8명을 임의동행했다.

조사팀은 현장에서 박근혜 후보 명의의 임명장 2박스를 비롯해 입당원서, 박 후보의 일정, 박 후보를 위한 SNS 미디어본부 활동상황 보고서,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윤씨는 SNS 관련 회사 대표로서 새누리당 SNS 컨설팅을 주로 맡아왔으며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 미디어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시선관위는 설명했다.

윤씨는 9월 말부터 여의도에 회사를 차려놓고 직원 7명을 고용, 박 후보에게는 유리하지만 민주통합당 문

재인 후보에게는 불리한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박 후보 선대위 조직총괄부로부터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 700~800매를 전달받아 우편 발송하는 등 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직원들이 리트윗한 활동실적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 새누리당 가계부채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가 입수한 ‘SNS활동 평가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캠프트윗, 캠프의 정책홍보 트윗 등 항목을 두고 각각 배점과 만점, 최대치 등을 평가했고 이슈모니터링·콘텐츠대응팀·전략대응팀 등 직책을 맡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이에 민주당은 박 후보 측에 맹공

을 퍼부었다.

선대위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직적으로 민심을 현혹하고 선거를 혼탁하게 하려고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했다는 점에서 엄중처벌 대상”이라며 “새누리당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피고발인인 윤모씨 등은 16일 서울시선관위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 관련 회사 대표인 윤모씨와 권도 국정홍보대책위원장은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트윗·리트윗으로 조직적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친구들이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렴” 총기난사 사건으로 어린이 20명을 포함해 모두 26명의 사망자를 낸 미국 코네티컷주 뉴타운에서 15일(현지시간)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한 아간 촛불집회가 벌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美서 총기난사 27명 사망

코네티컷 초교서… 어린이 20명 희생
모친 살해후 범행… 한인 피해자 없는듯

미국 코네티컷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14일(현지시간) 오전 무장괴한이 총기를 난사, 어린이 20명을 포함해 최소한 28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다.

미국인들은 희생자 대부분이 6~7세 어린이들이란 점에서 이전 총기난사 사건들에 비해 더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이에 따라 더 이상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총기 소유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범인인 애덤 란자(20)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모친이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는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를 찾아가 이 학급 유치원생들에게 마구잡이로 총격을 가했다.

이 사건으로 어린이 20명과 교직원 등 26명이 숨졌다. 범인은 이후 자신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했다. 집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범인의 모친과 자살한 범인을 포함해 현재 사건 관련 사망자는 28명이다.

이번 참사는 2007년 4월16일 버지니아주 블랙스버그의 버지니아택에서 한인 학생 조승희가 32명을 사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 학교에서 발생한 최악의 비극으로 기록됐다.

특히 미국에서 가장 잘 살고 안전

한 곳으로 평가받는 코네티컷 지역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많은 미국인을 충격과 비판에 빠뜨리고 있다.

범인은 오전 9시40분께 어머니가 근무하는 학교로 차를 몰고 가 수업중이던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총기를 난사했다고 현지 경찰 관계자가 밝혔다. 학교로 가기 전 집에서 함께 살던 모친도 사살한 것으로 보인다.

이 학교는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5~10세 어린이들이 다니는 곳이다. 뉴욕타임스(NYT)와 AP 통신 등 외신들은 애덤이 다녔던 뉴타운 고교 급우들의 말을 인용해 그가 학창 시절 성적이 뛰어났으며, 수줍을 많이 타고 친구도 거의 없는 ‘외톨이’였다고 보도했다.

현재까지 한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연합뉴스

朴측 “文측이 여의도研 여론조사 조작”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은 16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 결과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이 조작,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에 유포했다고 주장하는 등 대대적 공세를 퍼부었다.

김광림 여론 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당사 브리핑에서 “패색 짙은 민

주당의 흑색선전이 도를 넘어 상대당 여론조사까지 조작하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여론조사를 정치공작과 구태정치 도구로 악용하려는 세력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매일 실시되는 자체 여론조사는 한 번도 근접된 적도, 뒤진 적도 없고 상당한 우위를 안정적으로 유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해진 대변인은 전날 민주당의 광화문 유세와 관련, “불법 행사용 소품을 무차별적으로 나눠준 것이 언론에 보도돼 문 후보와 이인영 상임선대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선관위에 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민주당 정동영 후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미국의 ‘노인평화’로 규정하면서 ‘민주당은 나이 많은 국민을 모욕하고 노인과 젊은 사람을 편 가르기 하는 신종

국론분열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통합당이 서울 여의도의 한 건물에서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로 불법선거운동을 해왔다고 새누리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새누리당은 최근 민주당이 여의도 신동해 빌딩에 자원봉사자 명부를 70명 이상을 동원해 SNS로 불법선거운동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北 김정은 국방위원장
로켓 발사 직접 명령

사에 따른 대북제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논의 중이므로 우선 거기에 참여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자체 제재’ 가능성을 열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미국이 북한의 예비로켓 설치 정보를 파악하고도 한국에 알려주지 않았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미국이 일본에만 주고 한국에는 안 줬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12일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찾아 장거리 로켓 ‘은하 3호’의 발사를 현장에서 지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에 14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로켓 발사 당일인 지난 12일 오전 8시 ‘은하 3호’ 발사와 관련한 ‘최종 실행명령’을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에 하달하고 발사를 1시간 정도 앞둔 오전 9시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찾았다. 위성관제종합지휘소는 평양에서 북서쪽으로 약 20km 지점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광산구 인사 실무자가 근무성적 순위 변경

광주시, 종합감사 34건 적발
우수 행정사례 5건 시장표창

광주시는 “광산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 34건을 적발해 관련 공무원을 징계조치하는 한편 우수 행정사례 5건에 대해서는 광주시장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산구 모 인사 실무자는 국에서 제출한 근무성적 순위를 변경한 것이

적발돼 경징계를 받았고, 부당하게 농지허가를 내준 공무원 6명은 경징계 또는 훈계조치됐다. 수완택지개발내 호수공원에 ‘희망우체통 조성사업’을 하면서 건설업과 무관한 모 대학 산학협력단과 수의계약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광산구는 또 면밀한 타당성 조사없이 친환경대중골프장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과 위탁관리 협약 등도 엉망으로 처리해 손실이 발생하고 있

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체육센터 관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개보수 등 관리비를 수탁자에게 부담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1억4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했다.

광산구립도서관은 4년동안 소장도서에 대한 재물조사를 하지 않았고, 실제 소장한 도서수량을 점검한 결과 장부상 수량보다 6908권이나 부족했다. 광산구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소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고, 유흥업소 2곳과 학교법인에 대한 취득세 4000여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박진표기자lucky@

류우익 “北 핵실험 준비 상당히 진전”

김성환 “유엔 대북제재 참여 뒤 자체 제재”

류우익 통일장관은 지난 14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핵실험이 이어질 개연성이 크며 정보를 종합하면 핵실험 준비를 상당히 진전시킨 상태”라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북한은 미사일 발사 실험 후 꼭 핵실험을 한 전례가 있고, (로켓 발사의) 목적 자체가 핵탄두 운반수단 기술을 확보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정권은 지난 20년간 상당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일관되고 집요하게 핵무기 프로그램을 진행해왔고 이번 미사일 발사도 그 진행 과정의 하나”라며 “국제사회의 반대와 저항을 각오하고도 (강행)하는 것을 보면 당장 핵개발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성환 외교장관은 북한 로켓 발

철저·한·독·일·인·의·장·인·정·신

“행복한 소리”

이제 여러분 곁에 **독일보청기**가 있습니다.

◆ 다채널 방식 / 100% 디지털 고막형 ◆

- ▶ 전화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 ▶ 음향 이득효과가 큼니다.
- ▶ 신경성 난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 ▶ 피드백 현상이 제거 되었습니다.
- ▶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 ▶ 잡음을 자동적으로 제거합니다.
- ▶ 반영구적입니다.
- ▶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 중·고, 구형보청기를 신형으로 교환가능 (타사 보청기 환영)

독일보청기백화점 광천티미널 건너편 6층 (광명빌딩 603호)
☎ 062-222-1510 야간 : 062-573-5106

한국공인중개사

부동산투자 경매 일반투자

95%적중
아파트,상가,단독주택,원룸,모텔 토지(대지/전/답/입)특수물건

- ▶ 경매 경험 없는 분, 단기간 수익 내실분
- ▶ 소액경매 투자회원 수시모집(회비,교육비없음)
- ▶ 소액경매, 부동산투자, 경험없는 분
- ▶ 소액경매투자 → 500만원 (100% 수익률 보장)
- ▶ 소액 2천만원, 5천만원 (100% 수익률 보장)
- ▶ 유치권, 특수물건 투자 100% 낙찰 입찰 대리

대지, 전, 답, 입야 매매 신속처리

가족묘지, 남골묘, 산산, 농장, 전원주택지
공장용지, 임대용 아파트, 원룸, 상가 다량물건보유

20년 원조 **땅**
부동산, 투자, 경매, 권리분석 하지않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원룸, 상가, 토지, 모텔 권리분석 전문부동산)

☎(062)376-1128 / H.P 010-7443-6200
FAX. (062)384-0050 / (062)385-1125
토지분석전문(서구정영) 광주 서구 농성동 641-5
네이버 카페에서 hankookland로검색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남평 강변도시를 주목하세요!

투자.. 지금이 기회!!

혁신도시 보다 저렴한 분양가!
광주시 남구와 공동학군!
대단위 아파트단지 분양예정!
관광호텔, 오피스텔 신축!
점포겸용 주택4층, 근생, 상업용지!

나주혁신도시 · 남평강변도시 전문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

급매 상가/원룸

- ▶ 총 합계 : 보증금 4,700만 원세794만
- ▶ 1층 편의점 1개 원룸 21개, 투룸 4개
- ▶ 토지면적 : 330.58㎡ (100p)
- ▶ 건축면적 : 737.19㎡ (223p)
- ▶ 매매가 6억 9천(용지 2억4천 4백 포함) 보증금 4천7백만 원, 월세 794만원 용자금과 보증금 공제하면 실투자금 3억9천9백만 대출이자 월 122만원 공제하면 월순수익 672만원 년수익률 20% 편의점 운영하면서 원룸관리 하시면 월수익 1,000만원 이상 가능함.

문 의 : 011-684-3886

모텔 매매

- ▶ 아시아문화전당 전대병 원부근
- ▶ 토지 89P 건물 233P
- ▶ 5층 객실21개 지하 노래홀 엘리베이터 주차장 각종 편의시설 완비 최근 리모델링 완료
- ▶ 매매가 4억9천 용지 2억3천 5백 실투자액 2억5천5백

문 의 : 011-684-3886

가 은 공인중개사

무인텔 급 매

“담양” 무인텔
대 지 : 5,048㎡
연건평 : 2,474㎡
객 실 : 32개
현 성업중
상무지구에서 15분
매매가
상담후 결정

염전 급매

해남 염전
138,600㎡
신안 지도
50,000㎡
매매가
상담후 결정

상무지구 랜드피아 사거리
010-8289-8549

대인동상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번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 (FAX) 223-1772 ☎ 011-602-2532
(광주은행 신분점앞,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